10/11/20

설교 제목: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그리고 택함의 목적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27 장 30 - 40 절

(창 27:30)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창 27:31)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절관주] 창 27:4

(창 27:32)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창 27:33)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절관주] 창 28:3

(창 27:34)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창 27:35)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창 27:36)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절관주] 창 25:33

(창 27:37)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절관주] 창 27:28

(창 27:38)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 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창 27:39)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창 27:40)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본문은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중 결국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 주겠다고 선언한 택자인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모두 받고 유기자인 에서가 버려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택한 자와 유기한 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편애하는 장자 에서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승받은 하나님의 복을 물려 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리브가와 야곱이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끼어들어 서로 속이고 속는 추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당신의 뜻을 그대로 성취해 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여 선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이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심히 떱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덮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드립니다.

본문은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시킨대로 사냥을 해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가 축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 27:30)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창 27:31)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자신이 받아야 하는 복을 빼앗아 간 것을 알고 에서는 통곡을 하고 이삭은 심히 떱니다.

(창 27:32)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창 27:33)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창 27:34)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창 27:35)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의 통곡 소리를 듣는 이삭의 가슴은 찢어지게 아팠을 것입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자신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자신의 말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자신을 속여 축복을 받아간 야곱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삭은 에서에게 단호히 그가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을 취소하고 에서에게 돌려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에서를 축복하려 했는데 결국 하나님 뜻대로 그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간 것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심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인간의 행동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오로지 인간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롬 9:10)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롬 9: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롬 9:12)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롬 9:13)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에서는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물까지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으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야곱은 노력과 수고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채는 비열한 행동을 했지만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야곱의 잘못을 열거함으로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합니다.

(창 27:36)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창 27:37)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물론 야곱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에게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참된 경건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이 모두 자신의 것인양 착각을 했는데 그 사실은 그가 아버지에게 '나의 장자의 명분' '내 복'을 야곱이 빼앗가 갔다고 언급한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여겨 그것을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회개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이 여겼고 그것을 후회하여 뉘우치고 되돌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앞서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은 사실을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일말의 후회나 뉘우침도 없었고 회개도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에서에 대해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 12:16)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 12:17)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부분은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라고 한 대목입니다.

에서는 그의 망령된 행동을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버린 바되어'

택자와 유기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택자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유기된 자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빌어줄 남아있는 복이 없다고 하자 다시금 울면서 축복을 해달고 매달립니다.

그렇다고 에서가 갑자기 하나님의 복을 갈망해서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요구는 믿음 안에서의 요구가 아닙니다.

에서의 울음은 육신의 욕구를 채우지 못한데 따른 억울함과 그것을 빼앗긴데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이런 에서에게 이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 27:38)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 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창 27:39)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창 27:40)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것은 도저히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라고 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한 것과 대조가 됩니다.
또 '너는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라고 합니다.
야곱에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라고 축복한 것과 대조가 됩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라고 말합니다.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것은 세상 힘을 믿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힘을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칼을 믿고 생활하는 나라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도를 지키며 사는 나라입니다.
이어지는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라는 말은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한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는 영적인 나라가 결국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에서가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택한 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기된 자는 결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에서가 억울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야곱이 받아간 복이 원래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바탕을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은 원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기로 예정하신 것인데 오히려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편애하는 장자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은 본래 주인을 찾아 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어미 리브가의 태 중에 있었을 때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미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택자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택자나 유기자나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택자와 유기자를 정하셨고 텍자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을 당신의 주권으로 성취해 나가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서 바꾸려 해도 택자가 받아야 할 복을 유기자가 받는 경우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택자와 유기자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고 복 주신다고 선언하셨기에 택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모두 죄인입니다.
그들의 행동으로는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신 하나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야곱을 택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선택과 유기가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면 어떤 이들은 그럼 택자는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입니다.
하나님은 택자를 훈련시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 영광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무 공로없음에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택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택자로서의 책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 받은 것입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